광주FC·전남드래곤즈 운명의 원정길

광주, 전북에 이기면 3위 확보 ACLE 플레이오프 진출
전남, 부천과 최종전 승리 땐 '승격' 위한 준플레이오프 티켓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가 비장한 각오로 원정길에 오른다.

광주는 이번 주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플레이오프 무대를 겨냥한다. 전남은 '승격'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 벼랑 끝 승부에 나선다.

광주는 25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가 전북현대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37라운드 원정 경기를 벌인다.

12월 3일 안방에서 열리는 포항스틸러스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앞서 진행되는 광주의 마지막 원정 경기다. 광주는 오로지 승리만 바라보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광주(승점 58)가 승리를 거둔다면 전북(승점 54)을 따돌리고 K리그1 3위 자리를 굳히게 된다. 구단 역대 최고 순위다.

3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ACLE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얻게 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2024-2025 ACL에 참여하는 K리그 팀들의 대회 참가 자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즌 K리그1, FA컵 우승팀은 2024-2025 시즌 ACLE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ACLE 플레이오프 티켓은 K리그1 2위 팀에게 돌아간다. 2부 리그 격인 신설대회 ACL2의 출전권은 3위 팀이 가져가게 됐다.

하지만 이미 본선행을 확정한 FA컵 우승팀 포항이 현재 2위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3위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다. ACL2는 4위팀의 차지가 된다.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가 운명의 승부를 위해 원정길에 나선다. 광주는 25일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아시아무대' 확정을 노리고, 전남은 26일 부천 원정에서 준플레이오프 티켓에 도전한다. 광주 엄지성이 지난 6월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슈팅을 하는 모습과 전남 박태용(오른쪽)이 지난 12일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발디비아와 기뻐하는 모습. 〈광주FC·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거침없이 달려온 광주는 이왕이면 ACLE에서 아시아 무대 데뷔전을 치르겠다는 각오다.

최근 1무 1패로 주춤했던 광주는 2주간 A매치 휴식기를 통해 전력을 재정비했다. A매치 대표팀에 차출됐던 이순민, 아사니와 함께 올림픽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허율, 엄지성이 부상 없이 팀에 복귀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 최근 컵 대회 포함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포항에 FA컵 우승컵도 내주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전북은 전통의 강호다.

전북은 김진수를 비롯해 박진섭, 백승호, 문선민, 이동준, 홍정호, 송민규, 구스타보 등 탄탄한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다. 또 안방에서 경기를 하는 만큼 전북팬들의 뜨거운 응원전도 뚫어야 한다.

광주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전북 안방에서 아시아 무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은 26일 오후 3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를 상대로 K리그2 2023 39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2023시즌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승부다.

단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K리그2에는 숨 막히는 순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은 앞선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3-0 대승을 거두면서 부산의 '우승'을 저지했다. 전남에 일격을 당한 1위 부산은 2위 김천상무FC에 승점 2점 차로 쫓긴 상황에서 우승 축배를 들기 위해 살 떨리는 최종전을 치르게 됐다.

전남에게도 최종전은 '운명의 승부'다.

승점 53으로 6위에 자리한 전남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5위 부천(승점 54)을 만난다.

이번 경기에서 전남이 승리하게 되면 극적으로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 4위 경남FC도 승점 54로 가시권에 있는 만큼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

베테랑 수비수 닐존주니어를 앞세운 부천은 안재준, 김호남, 이의형을 전면에 내세워 전남 골문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최근 흐름이 좋다. 두 경기 연속 3골을 몰아친 전남은 연승을 기록하면서 승격을 향한 마지막 불꽃을 살렸다.

앞선 부산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박태용과 올 시즌 13골·1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해결사' 발디비아가 승리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그라운드에 오른다.

올 시즌 두 팀은 1승 1무 1패로 팽팽히 맞서 있다. 전남이 부천과의 최종전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고 준플레이오프행을 확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이강인, 이젠 소속팀서 골 사냥

손, 빌라 상대로 위기의 토트넘 구하기
이, PSG서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도전

11월 A매치에서 시원하게 골 맛을 본 클린스만호 공격수들이 소속팀에서 골 사냥을 이어간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26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애스턴 빌라를 상대로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11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토트넘은 11라운드 첼시(1-4), 12라운드 울버햄프턴(1-2)과 경기에서 잇따라 패하며 상승세가 확 꺾였다.

특히 공격의 엔진 역할을 해주던 이적생 제임스 매디슨과 주축 수비수 미키 판더펜이 나란히 장기 부상을 당해 전열에서 이탈한 것은 큰 악재다.

11월 A매치 휴식기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진을 잠시 끊어낼 수 있었던 건 다행이었다.

첼시전과 울버햄프턴전에서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손흥민은 클린스만호에서 치른 A매치 2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며 '영점'을 다시 맞췄다. 도움도 1개를 곁들였다.

득점 감각을 확 끌어올린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의 '위기 탈출'에 앞장서려 한다.

공격 부담을 나눠지던 히샤를리송도 사타구니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고서 휴업 중이라 손흥민의 어깨는 무겁다.

손흥민은 올 시즌 EPL에서만 8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리그 득점 랭킹 공동 3위다.

토트넘에 이번 애스턴 빌라전 승리는 더 절실하다. 한때 1위였던 토트넘이 연패로 4위까지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애스턴 빌라는 바로 아래인 5위(승점 25)에서 호시탐탐 윗자리를 넘보고 있다.

1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28)부터 5위 애스턴 빌라까지 승점 차는 3에 불과하다. 4~5위뿐 아니라 다른 순위도 주말이 지나면 확 바뀔 수 있다. 토트넘의 선두 탈환도 불가능하지 않다.

클린스만호에서 1골을 넣고 울버햄프턴으로 돌아간 황희찬은 28일 오전 5시 풀럼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울버햄프턴은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의 좋은 성적을 내며 순위를 12위(승점 15)로 끌어올렸다. 15위(승점 12)인 풀럼에 승리하면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

울버햄프턴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좋아지는 추세인데, 6골 2도움을 올리며 팀 주축으로 자리 잡은 황희찬의 영향이 커 보인다.

이미 자신의 한 시즌 EPL 최다 골 기록을 경신한 황희찬이 주말 시즌 7호 골을 터뜨리며 '황소의 질주'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손흥민

이강인

A매치 2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리며 대표팀 '새 에이스' 입지를 굳히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한 이강인은 25일 오전 5시 홈에서 치르는 프랑스 리그1 13라운드에서 모나코를 상대로 시즌 3호 골에 도전한다.

이강인은 지난달 26일 AC밀란(이탈리아)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3-0 PSG 승)에서 PSG 데뷔골이자 자신의 UCL 첫 골을 터뜨린 데 이어 정규리그에서도 도움과 골을 기록, 공식전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리그 3위(승점 24) 모나코를 상대로 좋았던 흐름을 되살린다면 팀 내 입지를 더욱 넓힐 수 있다. PSG는 리그 5연승으로 선두(승점 27)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 PNC 챔피언십 출전
4년 연속 아들 찰리와 함께

타이거 우즈(오른쪽)와 아들 찰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부상에서 벗어나 대회 출전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23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현지시간으로 12월 16~17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칼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가족이 팀을 이뤄 출전하는 36홀 대회로, 선수들은 카트를 탈 수도 있다.

우즈는 이 대회에 2020년부터 4년 연속 아들과 함께 출전한다.

우즈는 이에 앞서 현지시간 11월 30일부터 나흘간 바하마에서 열리는 히어로 월드챌린지 대회에도 출전한다.

우즈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 대회는 아니지만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데다 카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흘 동안 걸어서 플레이해야 한다.

지난 4월 발목 수술 뒤 대회에 나서지 않았던 우즈는 히어로 월드챌린지가 끝난 후 2주 만에 다시 출전할 계획을 잡으면서 본격적인 정규 대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